

# 김용민브리핑

2017년 1월 2일 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블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b>알싸한홍어</b>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b>정성농장홍삼</b>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시대와 삶을 함께 읽는다! <b>한국현대생활사</b>	창작과비평사 031-955-3333 goo.gl/YDYJDW
바로 잡힌 골반, 건강한 인생 <b>바디로직</b>	070-8220-5796 store.bodylogic.co.kr
무료 웹 애니메이션 채널 <b>좀바라TV</b>	032-258-6261 zombara.com
최고급 러시아 냉동대개 <b>대개직거래장터</b>	1644-9047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b>비타샵</b>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뚫! 장 청소는 <b>미궁장사랑</b>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b>수아비스화장품</b>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b>풍무양고기</b>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b>매트리스엠</b>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b>내피알</b>	032-519-4800 nepr.co.kr
일반 짜장 파스타 맛에 취했다 <b>킹닭갈비</b>	070-4217-7179 goo.gl/XYfR9D
김용민 브리핑 대리운전 <b>브리핑대리운전</b>	1522-9687 박근혜 구속시 1회 무료이용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점</b>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b>이담채김치</b>	1544-4586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b>전창걸의새싹땅콩차</b>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b>좋은사람과플라워</b>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황제보령커피 그리고 <b>월7천원업전자보험카페</b>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b>와우전복</b>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미수에 팔팔 끓인 <b>연지연곰탕</b>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왕의 목을 따는 혁명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사형이 횡행하던 시절에도 집행관에게 고뇌가 없었던 게 아니다. 고뇌의 정점에는 실패하는 상황이 있다. 입장을 바꿔 집행 대상의 목이 한 번에 잘려 나가지 않을 때를 떠올려 보라.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효수했던 실존인물 샤를 앙리 상송. 그의 시각으로 쓰인 '왕의 목을 치는 남자'를 읽다보면 참수도 기술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목을 댄다고 다 잘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1번 경추 아래 평평하고 접촉이 느슨한 부분"을 정확하게 노려야 한다. 하지만 또 있었다. 칼날이었다. 이 지점에서 칼날이 일직선일 경우 실패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간파한 이를 주목하자.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바뀌보라고 제안한 그는 다름 아닌 루이 16세였다. 자신이 첫 실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못 한 채, 상송은 감히 높으신 분을 가장 가혹하게 저승 밖으로 내모는 망극한 역을 맡았고 결국 집행 대상의 조연을 충실히 받들어 전대미문의 '왕의 목을 딴 역사'를 완성시켰다. 이 사건은 현대민주정이 자리 잡은 지금도 동서고금의 군주에게 '살 떨리는 귀감'이 되고 있다.

모든 혁명에는 계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소금 폭동이였다. 기상이변이 심해서 밀농사가 두 해에 걸쳐 망했다. 빵이 주식인 나라에서 이 같은 흉작은 치명적인 식량난을 불렀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 하루 평균 임금이 8만8천 원 조금 못 된다. 그런데 7만7천 원이 식비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프랑스의 당시 상황이 그랬다. 빵 값은 하루 임금의 88%를 점할 정도였다. 이런 와중에 루이 16세가 소금세까지 부과하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말을 했다는 낭설까지 번지면서 민중은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루이 16세는 몸을 숨기게 된다. 하지만 곧 붙잡힌다.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던 와중에 혁명군에게 꼬리를 잡힌 것인데, 사진기조차 변변치 않던 시대에 그의 '초상'이 알려지게 된 것은 영예로울 목적으로 화폐에 박아낸 자신의 얼굴 때문이었다. 파리로 압송된 루이 16세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민중에 의해 권력을 박탈당하고 생명권마저 자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이 추상같이 살아 있는 역사. 후대는 이를 '프랑스 대혁명'으로 명명한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월 2일(월) 1부 | 신년 여론조사 10개 중 9개 "문재인 1위"

- [오프닝] 박사모 집회에서 벌어진 '팩트 폭력'
-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 "3자 대결, 양자 대결 모두 문재인이 이기는 게임"
- 박근혜, 탄핵 속도 불자 초조한 마음에 간담회 연 듯
- 박, 이재용에 "승마지원 왜 늦나" 화·공갈죄 저촉
- 조윤선, 장관되자마자 "블랙리스트 증거 지우라"
- 김기춘, 원세훈 재판 결과 미리 받아본 정황 발견
- [뉴스듣기능력평가] 9년 전 'BBK 특검' 관련 퀴즈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김정연의 겸손·무슨 이유? "자신감 표출로 해석"
- 삼성 LG 난리났다·중국,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제동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애청자 여러분, 새해 이 사람부터 함께 만나시지요
- [공화국 논평] 탈당 선언 이명박에 대한 중대 조치

차기 대선 전망

朝鮮日報 3자·양자 대결, 모두 문재인 승

조선일보를 비롯한 10개 넘는 신문의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추이가 있다. 문재인이 원톱이다. 조선일보만 보겠다. 3자 대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약 40%, 개혁보수신당 후보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약 29% 국민의당 후보로 안철수 전 대표는 약 11%의 지지율을 보였다. 또한 반기문 전 총장과 안철수 전 대표가 이른바 '제3지대'를 통한 단일화를 이룬 경우에도 문재인 전 대표가 42%로 앞선 지지율을 보였다. 양자 대결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은 약 35%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

여야 주요후보 다자대결시 대선판도(지지율)

언론사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조선일보	24.0%	17.4%	11.5%	5.4%	4.3%
중앙일보	25.8%	22.7%	13.1%	6.6%	4.5%
동아일보	22.7%	18.1%	10.5%	4.7%	3.6%
한겨레	27.4%	18.3%	12.0%	5.7%	3.3%
세계일보	25.1%	21.3%	16.3%	5.6%	4.7%
매일경제·MBN	25.2%	22.1%	11.5%	6.8%	4.8%
SBS	25.1%	18.3%	12.2%	6.3%	4.4%
연합뉴스·KBS	21.6%	17.2%	11.4%	4.6%	4.6%

東亞日報 반기문, '절대 안 찍을 후보' 1위

동아일보는 대선에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약 2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상 지지율 1위인 후보가 반대비율도 1위를 차지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약 22%, 3위는 10%인 황교안 국무총리였다.

한겨레 대선, '4월 26일'·'5월 10일' 유력

정치권과 법조계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 황교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헌법재판소 선고일로부터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적절한 날을 택해야 한다. 60일 넘기면 위법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는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치르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규 대선일이 수요일로 규정된 만큼 다음 대선은 4월26일 또는 5월10일이 유력하다.

박근혜 신년 기자 간담회

중앙일보 박근혜, 탄핵심판 닥쳐오니까

대통령 박근혜가 예정에 없던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자청했다. 갖은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 궁박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중앙일보가 분석했다. 첫 변론기일이 내일로 다가오는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지자 이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간담회에서 박근혜는 대국민사과 담화 때와는 태도를 180도 바꿨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한겨레 사설 "박근혜, 도대체 제정신인가"

어제 있었던 대통령 박근혜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한겨레 사설을 살펴보자.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가 신년 간담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기 이를 데 없다. 또한 특검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나 국회 청문회장의 증언조차 모조리 부인했다. 최순실·차은택, 안종범 전 수석, 문형표 전 장관 등이 누명을 썼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알 수가 없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했다. 남들은 모두 인정하는 현실을 전면 부정하고 자기만의 환상에 갇혀 사는 듯하다."

한국일보 "'차 간담회'는 헌법절차 무시"

이 기자간담회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이나 특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거꾸로 전문가들은 박근혜의 이 같은 처신이 헌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근혜가 지위를 이용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압력을 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게 되겠나 싶다.

궁지로 몰리는 차

국민일보 박근혜, 독대 때 이재용에 화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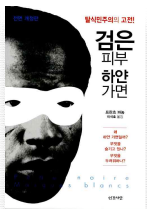
기자간담회에 대한 특검의 반응은 국민일보에 실렸다. 대통령 박근혜는 지난해 7월 청와대 안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가졌지?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승마지원이 왜 늦어지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던 이재용 부회장은 독대 후 서둘러 회의를 소집했고, 이후 대한승마협회 지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의 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국일보 특검, ‘차 뇌물죄’ 입증 진술 확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 소유의 코레스포츠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은 것은 ‘합병 찬성에 따른 대가’라는 승마협회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순실의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하는 이유는 최순실이 합병을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 박근혜의 지시가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박근혜의 뇌물죄 입증이 충분하다는 판단하고 있다.

한겨레 차, 국정개입 문제란 걸 알았던 듯

검찰과 특별검사팀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2014년 정윤희가 국정에 관여했다는 세계일보 보도가 나오자 박근혜가 최순실과의 통화를 줄이고, 연설문 등을 전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박근혜는 문건 유출 파동이 잠잠해지자 최순실에게 다시 각종 정책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박근혜가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오늘을 읽는 책  
지배세력 부당 폭력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

블랙리스트 파문

한겨레 조운선, 증거 인멸 지시한 듯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 뒤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파기하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져, 이를 실행했다는 내부 폭로가 처음 나왔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한 관계자가 이 같은 내용을 한겨레에 증언한 것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남겨뒀으며 이를 검찰 수사진에게 넘겨줬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도 증거 인멸 지시가 있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 증언을 확보했으며, 조운선 장관의 혐의에 거의 확실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東亞日報 “靑, 전화로 블랙리스트 통보”

대통령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전화로 통보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다. 또한 특검은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운선 장관이 정무수석일 때 수차례에 걸쳐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예산 지원 배제 대상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것이다. 이에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위증한 조운선 장관을 고발해 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

무법천지 청와대

한겨레 ‘기치료 아줌마’ “차 치료 했다”

대통령 박근혜의 ‘기 치료’를 정기적으로 해왔다는 이가 확인됐다. 서울 강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오모씨는 “박근혜가 대구 국회의원 시절이던 10년 전부터 지난여름까지 대통령을 정기적으로 ‘기 치료’를 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치료는 부인했다.

## 노컷뉴스 김기춘, 원세훈 판결 미리 알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정황이 나왔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장' 아래 “원 2.6y, 4유, 정3” 이라고 적혀있다. 날짜는 2014년 9월 11일, 원 전 원장의 1심 선고가 있던 날이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비서관 회의가 통상 아침에 열린다는 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1심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은 같은 날 낮 2시에 열렸기 때문이다.

### 박근혜의 주변에선...

## 東亞日報 박지만 비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대통령 박근혜의 남동생 박지만의 비서로 10년 동안 근무했던 주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며 “외부 침입도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하야하면 그 주변 살인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 東亞日報 최경환 “차라리 날 죽여라”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계 핵심인사들에게 6일까지 당을 떠나라고 했지? 그러자 친박계 핵심 인사 10여 명은 어제 모여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차라리 날 죽여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친박계 만형인 서청원 의원은 인명진 위원장에게 뒤통수를 맞았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당이라고 말한 인명진을 데려와 놓고는 무슨 뒤통수 운운하나. 실없는 사람들이다. 한편 전 대통령 이명박도 곧 조만간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의 칼럼

## 경향신문 “‘푸른 기와’ 새 주인 누구?”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경향신문에 실린 기획기사 “‘푸른 기와의 전설’ 새 주인공은 누구?”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의 글이 되겠다.

“반기문은 침몰 직전의 보수를 구할 메시아가 맞는 걸까.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자칭 측근과 언론에 의해 유력주자가 되었지만 난 여전히 출마와 불출마 가능성을 반반으로 본다. 온갖 시나리오로 유혹해도 연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시나리오만 보고 출연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보수 진영은 반기문이 위기에 빠진 보수를 건져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궁여지책’으로 불려나온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반기문은 2017년 보수의 궁여지책이다. 반기문은 가장 고령의 출마자이고 평생 외교관만 한 사람이다. 대중 선거 경험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혹독한 검증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를 둘러싼 많은 시나리오가 난무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보수 대표 주자’가 되어 반문연대의 선봉장으로 문재인과 맞서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충청과 영남,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중도, 세대로는 노장년에 기반해서 싸우는 전통적 전략이다. 이 시나리오의 치명적 약점은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가장 강했던 후보는 2012년 박근혜다.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지 않고도 차별화에 성공했고 TK와 충청 두 곳을 고향으로 인식시켰다. 그런데도 문재인에게 겨우 이겼다. ‘보수 연합’은 자칫하면 수구기득권 연합으로 비칠 수 있고, 70대 후보를 둘러싼 ‘늙고 늙은 연합’이 될 수도 있다. 이념적으로도 보수가 진보에 추월당했고, 투표율 선행지수인 선거 관심도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2040세대가 5060세대를 추월했다. 50대가 이미 보수로부터 이탈한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단언컨대 전통적 전략으로는 반기문이 문재인을 이길 수 없다.

1월 16일

김용민 브리핑이 국민TV와 함께  
업그레이드합니다